현불 논단

# 다시 '삼국유사'를 생각한다



석길암 교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역사는 미래 설계의 '지남철'**
**동국대 불교사 전공 드물어**
**불교학계, 역사소홀 반성을**

**일반史서 불교는 문화 치부**
**근대적 역사서술 한정 결과**

**삼국유사, 삼국사기 보완아닌**
**정면으로 논박한 역사 기록서**
**'불교적 역사 쓰기'는 되살려야**

과거는 단순히 흘러가버렸기에 잊어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지남철이 되는 것이 과거, 바로 역사이기 때문이다.

우리 불교계 그리고 불교학계는 오랫동안 이 과거를 되새기고 반성하는 데 소홀하였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한국 불교학 연구를 대표하는 종립 동국대학교에 불교사를 전공하는 연구자가 드문 것은 우리 불교계와 불교학계의 빈약한 역사인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인도불교사나 중국불교사 전공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불교사에 이르면 더욱 그러하다.

역사학과에서 불교사를 전공하는 이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사에서 불교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불교학에서 불교사를 바라보는 시각 사이에는 극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동일한 불교사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관점이 다르면 역사 인식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양자의 시각이 서로 비교되고 교차되지 않으면 올바른 역사인식이 힘든 까닭이다.

한국불교의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많은 왜곡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왜곡은 제대로 된 불교사 읽기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국가종교처럼 작동하던 시대의 불교는 문화사로만 기술된다. 숭유억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진 · 병자양란 이후 조선 국방의 상당부분을 책임졌던 수난시대 조선불교의 사회적 역할은 몇 줄에 그칠 뿐이다. 역사서에서 문화의 일부로서 '종교인 불교'를 서술하는 행태는 지극히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니까 근대인의 '종교'라는 제약된 관점으로 근대 이전 사회의 '불교' 혹은 '유교'의 역할을 재단하는 것은, 우리 역사 속 불교의 역할을 대부분 묻어버리고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 비슷한 일이 고려시대에도 있었다.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라는 미명하에 정치제도사 중심의 서술에 초점을 두었기에 신화적 역사쓰기를 배제하였으며, 종교와 신앙 그리고 민간의 삶과 역사는 도외시하였다.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는 그러한 〈삼국사기〉의 역사서술을 정면에서 논박한 것이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서 빠진 것을 보완한 역사서가 아니다. 일연 스님이 생각하는 '반드시 남겨야 할 역사'를 불교의 시각에서 서술한 역사서이다. 그랬기에 우리 민족이 전해왔던 건국신화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챙겨서 서술하였고, 불교가 국가종교의 역할을 했던 시대의 역사를 불교와 정치 · 경제 · 사회의 변동이라는 관점에서 채록하였다.

〈삼국유사〉가 없는 우리의 역사, 〈삼국유사〉가 없는 상태에서 서술된 우리의 불교역사를 생각해보라. 우리 조상들의 삶과 그 삶을 살아가는 사고방식을 결정한 테두리의 대부분이 결여된 반쪽짜리 역사에 불과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관이면서 불교도들이 지향해야 할 세계를 그려낸다. 거기에 기대어 불교적 이상세계를 꿈꾸는 노력들이 모여 우리 역사의 많은 가닥을 만들었고, 그것을 우리는 불교사라고 부른다. 〈삼국유사〉는 그 전형을 담은 역사서이다.

오늘 지난 일을 되새기지 못한다면, 내일은 더욱 되새기기 힘들어질 것은 자명하다. 불교국가 시대의 공과(功過)도, 억불숭유 시대에 불교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스님과 불자들의 간난신고(艱難辛苦)도 뚜렷하게 되새겨두어야 한다. 〈삼국유사〉가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든 시기에 집필되어, 잊힐 뻔했던 우리 역사의 진실을 차곡차곡 쌓은 보물창고가 되었음을 잊지 말자.

〈삼국유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당장의 오늘뿐만 아니라 기약해야 할 내일의 불교를 위해서도, 더 늦기 전에 우리 불교계가 역사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또 제대로 된 불교의 미래를 상상하고 기대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 불교의 역사쓰기와 되살리기에 나서는 것이 급선무라고.

社 說

# 조계종 대사회역할 확대 '기대'

신축년 새해는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출범한지 3년차가 되는 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018년 취임 당시 한국불교의 변화와 혁신을 기조로 밝혔다. 그리고 1년 후인 2019년 10월, 스님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으로 KTX 해고 승무원, 쌍용차 해고노동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꼽았다.

이후 조계종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멈춤에도 지속적으로 대사회 현안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 원행 스님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대사회 역할의 확대 기조를 밝혔다.

기후위기 문제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남북불교교류 확대가 대표적이다. 이는 중생을 비롯한 지구상 모든 생명과 함께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보듬으며 또 한반도 평화를 이끌기 위한 사안들이다. 동시에 동체대비와 중생구제 등 불교 본연의 가치를 드러내는 실천행이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관심이 반갑다. 기후위기는 생명의 종교인 불교가 결코 외면해선 안 될 문제이며, 불교적 사상과 가치를 통해 우리시대의 인식전환을 이끌 수 있는 핵심의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불교환경의제 21 선포 15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올해 대폭 확대된 조계종의 대사회행보에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시대와 함께하지 않는 종교, 중생을 외면하는 종교의 미래는 어둡다. 가장 어둡고 소외된 곳으로 내려가 그 아픔과 함께하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조계종의 발걸음이 불자들의 동참을 이끌고, 다시 한국불교 변화로 이어지길 발원해 본다.

## '교불련' 화합으로 내홍 해결을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이하 교불련)는 불교를 대표는 지성인 교수들의 모임이다. 1988년 창립한 이래 30여 년을 불자 교수들의 신행 증진과 불교진흥을 위해 그 역할을 해왔다. 특히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교수불자대회는 시대적 현안에 대한 불교적 해법 · 대안을 모색하는 주제를 다루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교수들이 혜안을 불교계 안팎에 제시했다.

그랬던 교불련이 차기 회장 선출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등기이사들을 "불법 사이버총회"로 주장하며 김성규 회장과 송일호 차기 회장을 회원에서 제명하고, 회장 직무대행으로 김한란 성신여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도 출범했다고 한다.

김성규 회장 측은 "적법 절차를 거친 총회"임을 강조하며 불교미래포럼과 인수인계 등 예정된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선다. 등기이사들은 김 회장 측이 불법적인 사이버총회를 열었고, 무자격 비회원들이 참여해 차기 회장을 선출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김 회장 집행부의 재무회계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김 회장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뤄진 결과라고 반박한다. 재무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여기에 김 회장 측은 제7차 불교미래포럼을 예정대로 진행했으며, 차기 회장에 업무 인수인계도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이렇듯 현재 교불련의 내홍은 강대강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이것이 지속되면 결국 법적 분쟁까지 갈 수 있다. 부처님은 항상 대중간의 화합을 강조하셨다. '파사현정'을 위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에는 '화합'이 있어야 한다. 교불련의 내홍이 화합 정신의 기치 아래 하루 속히 정리되길 바란다.



지원 스님의
## 마음처방전

# 마음이 통한다는 것

사람과 사람이 마주 하고 있을 때 서로 공명하는 경우와 공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마음의 리듬에 의해서 마음속의 음악을 연주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과학자가 '다이샤닝'이라는 액체를 발명하였습니다. 다이샤닝을 유리에 칠하고 그것을 유리를 통해서 인간을 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유리를 통해서 보면 인간의 육체가 아닌 유체(流體)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 육체에서 발하는 광선은 보이지 않지만 광선이 유리의 액체에 충돌해서 일종의 형광 같은 것을 퍼뜨려 그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기계를 통해서 인간의 유체가 보이고 그 유체의 색이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채를 띤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유체는 갈색의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연애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분홍색으로 변합니다. 흥분하면 빨간색으로, 겁에 질리면 하얀색으로, 놀라면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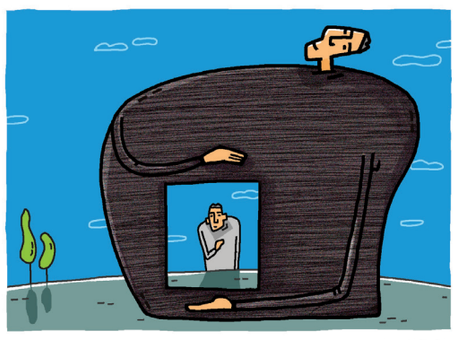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인간의 감정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유체의 색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발산하는 분위기, 즉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림자와 그림자가 사이좋게 서로 융합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미워하는 사이라면 육체와 육체는 사이좋게 이야기 하고 있어도 그 유체의 그림자는 서로 반발하여 떨어져 있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감추고 있어도 분위기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꽃향기를 감출 수 없는 것과 같지요. 우리들이 어떤 사람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상념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타인에 대한 혐오, 증오,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가 '첫눈에 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말없이도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첫눈에 반할 수도,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는 없습니다.

유체의 색깔이 나와 같은 색깔로 흐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앞세우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